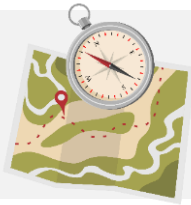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아프리카중동 권역



우간다에서 가져온 최고의 선물

손현아

저 멀리, 장장 18시간 여정의 끝이 보였다. 착륙 직전 비행기 작은 창문으로 바라본 우간다의 모습은 아직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멀리서 바라본 엔테베 국제공항은 한국의 시외버스터미널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고, 입국 심사를 하는 공항 내부 역시 조출하기 짝이 없었다. 한국의 인천 국제공항을 생각해서인지 적어도 공항만큼은 좋은 인프라와 규모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오후 2시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심사를 하는 공간은 다른 시간대인 것처럼 조명 하나 없는 오후 8시의 어두움으로 가득했고, 그 곳에서 여권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내 수하물의 생사(?)가 걱정됐다. 제발 무사히만 나에게 와줘.



엔테베 국제공항의 첫인상

드디어 우간다의 바깥 공기를 마시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던 한국과 달리 10월의 우간다는 선선하면서도 제법 뜨거웠다. 일행을 만나기 위해 공항 주차장으로 나선 순간 ‘내가 우간다에 왔구나’를 실감했다. 봄비는 사람들 틈에서 나의 움직임에 맞춰 이동하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느껴졌다. 한 가지 놀랐던 점은 생각보다 우간다에 동양인이 꽤 있다는 점이다. 운이 좋은 건지 같은 날,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인이 5명 정도 됐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우간다에 온 걸까?

우간다에 도착하자마자 대형 물에 가서 환전하고 유심을 샀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미있는 상황을 목격했다. 우리는 해외여행을 할 때 외국인들로부터 중국인 혹은 일본인이냐는 오해를 자주 받았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 눈에만) 특징이 명확한 한·중·일 인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역정을 내듯 한국인임을 토로한다. 생각해 보면 그들 눈에는 다 같은 황인종일 뿐인데. 그럼 과연 아프리카 사람들도 서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실제로 나의 일행은 에티오피아와 케냐 사람이었고, 우간다 통신사 직원은 그들을 너무나도 쉽게 구분한 뒤 ‘우리는 너희 에티오피아인들과는 달라~’와 같은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우간다인에 비해 피부색이 좀 더 밝고,

케냐인은 우간다인들에 비해 덩치가 있는 편이다’와 같은 특징들이 그들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그들에게도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직감이란 게 있는 걸까.

내가 처음 느낀 우간다인의 특징은 비교적 수줍음이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누군가 말할 때는 반드시 귀를 쫑긋 열고 집중해야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항상 사무실에서 메일로만 소통하다가 현지 직원들을 처음 만날 생각에 신나서 여성 직원들을 위한 마스크팩과 몇 가지 K-뷰티 제품을 선물로 챙겨갔다. 한국에서 가져온 간식과 선물을 나눠줄 때도 그들은 수줍게 간식을 챙겼고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짧게 표하곤 방에 들어가 제품을 살펴보며 좋아하고 있었다. 수줍음이 많은 직원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직원들 개개인의 특징을 파악하고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는 등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들은 알까? 내가 내향형이라는 걸.

내가 이 곳, 우간다 아루아(Arua) 주에 온 이유는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난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수위생 시설과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총 6개의 초등학교와 3개의 마을을 방문할 수 있었다. 평소 아이들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내가 이곳 아이들과 사랑에 빠졌다면 믿을 수 있을까. (한국으로 돌아온 지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나의 핸드폰과 노트북 배경화면은 우간다 아이들이라는 점.) 아이들의 어떤 점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



우선 학교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아이들이 내 주변을 둘러쌌다. 당연하다. 그들 눈에 나는 단지 찰랑이는 머리카락을 가진 백인일테니깐. 그런 아이들의 격한 환영이 좋았다. 수줍음 가득하지만 호기심도 가득해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었다. 수많은 아이들 속에 파묻혀 누가 내 머리카락을 만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열심히 말을 걸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난민 학교 어린 학생들은 영어를 사용할 줄 몰랐다. 라이노 정착촌 아이들은 대부분이 남수단 출신이며, 영어보다 아랍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말이 안 통한다면 몸으로 말해야지. 그때부터 나는 모든 손짓과 몸짓을 동원하여 아이들과 놀았고, 사진을 찍었다. 이때 찍은 사진들이 바로 우간다에서 가져온 최고의 기념품이자 선물이 아닐까. 나는 사진을 통해 아이들을 기억할 수 있어서 좋고, 아이들은 화면 속

자신이 나오는 것이 신나고 재미있어서 좋았을 것이다. 6개의 학교, 대략 30,000명의 학생들을 만나고 느낀 점은 우간다 아이들이 끼쟁이 DNA를 타고 났다는 사실이다. 사진을 찍을 때면 너도나도 모델이 된 것 마냥 저마다의 포즈를 취했고, 그들의 포즈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이걸 보고 어느 누가 우간다 사람들에게 샤이(Shy)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나를 동심으로 돌아가게 했다. 애지중지하는 빈 깡통을 자신의 장난감이라고 말하던 5살 소년 바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던 13살 수잔, 언어 천재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한국어를 잘 따라 했던 소녀 브리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가득 찼 만큼 인상 깊은 아이들이었기에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여전히 내 귓가에 맴돈다.



(10.26 Ocea Primary School) 잠재적 모델들과 함께



내 마음 속 영원한 원픽

아이들 뿐만 아니라 현지 직원들과도 친밀감을 쌓는데 성공했다. 매일 아침 그들의 언어인 루그바라어(Lugbara)로 은고니! (Ngoni, 좋은 아침, How are you? 의미)를 외치며 가까워졌다. 내가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었나.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올수록 직원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더욱 깊어져만 갔고, 급기야 그들을 오래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모든 순간을 사진과 영상에 담았다. 마당에서 함께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를 추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밸런스게임도 하고, 개개인 인터뷰 영상도 촬영했다.

출장을 오기 전, 출장 경험이 있는 회사 동료한테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냐고 물은 적이 있다. 동료는 ‘현지 직원들’이라고 답했다. 머리로만 이해가 됐다. ‘일하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같은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일하는 동료들을 직접 보는 것이니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대충 짐작했다. 그러나 직접 출장을 와서 경험 해보니 그 말을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전제로 하며, 이전까지 나는 이것의 중요함을 알지 못했다. 이번 출장은 여러 의미로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스물두살, 나의 첫 출장 그리고 첫 아프리카가 우간다여서 영광이었다.

Awadifo!



팀앤팀이 하나가 되는 순간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